

5·18 사적지 '옛 적십자병원' 원형보존 어렵다

안전진단 결과 기아보호소·영안실 등 대부분 철거 불가피 원형보존 땀 극히 일부 사용 가능... 보수보강 땀 원형 훼손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제 11호인 '광주적십자병원'이 활용과 원형보존의 기로에 서있다. 민간에 매각될 위기(광주일보 2019년 8월 28일자 6면)에 놓였던 적십자병원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기존 시설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간의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는 적십자병원에 대해 보강 후 활용 안과 원형보존안을 두고 5·18기념사업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적십자병원의 구조안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본관동·별관·참고·영안실 등은 'D등급', 기아보호소는 'E등급'을 받았다.

먼저 기아보호소(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33㎡)는 철거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이다. 별관(지상 2층, 연면적165㎡)·참고·영안실(각 1층, 연면적119㎡)도 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 구조인 조적조 방식으로 내진성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철거가 필요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왔다.

■광주적십자 병원 보강 방안	
원형보존 1안	철근콘크리트 구조 내진보강 후 사용 조적조 부분 사용 제한 본관동 극히 일부분만 사용 가능
보수보강 2안	병원 남측(응급실) 조적조 철거 후 철근콘크리트 개축면 병원 전체 사용 가능 원형 훼손 불가피

가장 큰 문제는 본관동이다. 지하1층~지상4층에 연면적 3501㎡의 본관동이 D등급을 받아 사용제한 또는 내진 보강 후 사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본관동 대부분도 조적조로 설치돼 내진보강 방안에 따라 건물의 일부 사용제한 또는 전체 사용을 위한 개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결국 활용을 위해서는 일부를 철거해야 한다는 게 건축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광주시는 2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중이다. 원형보존을 주요 골자로 하는 1안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내진보강 후 사용하고 조적조 부분은 사용제한을 해 원형보존을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해당 본관동의 극히 일부분만 사용이 가능해진다.

보수보강을 하는 2안의 경우 병원 남측(응급실) 조적조를 철거 후 철근콘크리트로 개축하면 병원 전체 사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원형 훼손은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광주시 동구 불로동에 위치한 옛 광주적십자병원 전경.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는 5·18기념사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안을 결정하고 활용방안을 진행할 방침이다. 원형 보존안인 1안이 결정되면 건물내부 활용이 극히 제한됨에 따라 방문자 센터와 헌혈의 집으로만 활용하고, 보수보강안인 2안이 결정되면, 1안의 활용방안에 추가적으로 문화예술창작소와 문화산업기업 인큐베이터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안이 결정될 경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십자병원의 응급실은 5·18 당시 부

상자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형보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5·18기념사업위원회의 심의는 5월단체들의 공법단체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해 오는 4월께 진행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조진태 5·18삼일시사는 "적십자병원은 당시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했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해당 건축물의 부분마다 스토리와 이야기가 있다"면서 "가능하면 원형보존을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최신 방사선암치료기 '헬시온3.0' 도입

화순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 가장 최신의 방사선암치료기 헬시온3.0(Halcyon)의 업그레이드버전 '헬시온3.0'을 국립대병원 최초로 도입했다. 헬시온은 미국 암치료기 전문회사인 바리안(Varian)이 개발한 방사선 치료장비로, 실시간 영상 유도를 기반으로 세기 조절 방사선치료를 할 수 있는 첨단장비다. 이번 도입 헬시온3.0은 가장 진보된 플랫폼으로, 정확하고 정밀한 치료를 하면서도 치료 속도가 기존 치료기보다 약 4배 빠르다는 점이 강점이다. 치료 부위의 영상유도용 CT영상 획득 시간이 기존보다 4배 빠르고, MLC 동작 속도도 2배 빨라져 방사선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또 향상된 영상유도용 CT영상을 기반으로 치료 때마다 환자의 자세나 위치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중구조의 다엽콜리메이터(MLC)로 만든 정밀 방사선량 분포를 사용해 종양부위에만 치료 방사선을 집중 조사(방사선을 물질에 쪼는 것)시켜 정상조직이 받는 선량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유방암, 전립선암, 두경부암, 폐암, 간담췌암, 직장암, 전이암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양을 치료할 수 있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5·18공로자회 공법단체 첫 보훈처 승인

법 개정 후 1년여만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가 5·18공법단체 중 처음으로 보훈처의 승인을 얻었다고 4일 밝혔다. 공로자회는 5·18 유공자 가운데 유족과 부상자를 제외한 기타 1·2등급과 무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유공자가 모인 단체로 기존에 (사)5·18구속부상자회에 속해 있었다.

공로자회는 "국가보훈처는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가 공법단체 설립승인을 요청한 지 8개월여만에 공로자회를 공식 승인했다"면서 "승인이 지체된 것은 공로자회의 공법단체 설립등기와 동시에 (사)5·18구속부상자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감안해 국가보훈처가 승인을 미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유족회·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도 조만간 공법단체의 승인을

얻을 전망이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이날 설립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5·18민주화운동유족회는 설립준비위원회가 꾸려져 해당 임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해당 승인 내용에 대해서는 5일 발표될 보도자료를 참고 해달라"면서 "해당 단체가 임의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대학들 정시 경쟁률 높아져

전남대 3.92대 1·조선대 2.95대 1... 지스트 82대 1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전남 주요 대학들의 2022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전남대 정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769명 모집에 6937명이 지원해 3.92대의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2.7대1 보다 큰 폭으로 높아졌다. 캠퍼스별로는 광주 4.6대 1(지난해 3.16대 1), 여수 2.12대 1(지난해 1.6대 1)이다. 최고 경쟁률은 수능(일반전형) 사회학과가 7명 모집에 101명이 지원해 14.43대 1을 기록했다. 수능(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간호학과, 의예과, 치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과정), 약학부의 경우는 각각 4.4대 1, 4.23대 1, 5.13대 1, 11.8대 1이었다. 조선대도 같은 날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441명 모집에 4253명이 지원하여 2.95대1(정원내 3.1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2021학년도 정시모집 2.31대1보다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형별로는 가군 일반전형이 3.34대1, 지역인재전형이 5.28대1, 실기전형이 3.45대1을 기록하였으며, 나군 일반전형이 2.88대1, 나군 실기전형이 2.30대1을 기록하였다. 일반전형에서는 학부 신입생을 첫 모집한 약학과가 9.50대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의예과가 5.28대1, 의예과가 5.2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인재전형에서는 약학과가 8.30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는 20명을 선발하는데 총 1646명이 몰려 역대 가장 높은 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 4개 과학기술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지스트의 정시모집은 수능성적 100%로 선발하는 수능우수자전형 단일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서구, 軍 소음 피해보상 접수

광주 서구가 오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군(軍) 소음 피해보상금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가 고시한 광주 서구의 소음대책지역은 지역은 치평동·서창동·유덕동 등 3개 동으로, 보상 대상 인구는 약 3만 2000여 명에 이른다. 대상지역 확인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kmnoise.samwoanc.com

)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보상기간은 대상지에서 2020년 11월27일~2021년 12월31일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날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No.8529)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치평동·서창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덕동 덕흥마을회관에서 접수하면 되고, 2월부터는 서구청 인근 거승빌딩 6층 군소음보상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남아 전용 '학대피해아쉼터' 광주 북구 본격 운영

광주시 북구가 지난 3일 남아 전용 학대피해아쉼터인 '광주민들레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소한 아쉼터는 침실과 심리치료실 등을 갖춘 비공개시설로 아동 7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임상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6명이 근무하며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신안정, 정서치료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카드
VISA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 환전·해외송금을 말하!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아니로마트 062)373-3235	아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